

전남, 홈 개막전서 우승후보 제주 잡고 승격 전쟁 시동

김주원 후반 13분 소중한 결승골
K리그2 두번째 경기서 첫승 신고
24일 서울이랜드 상대 연습 도전

전남드래곤즈가 홈개막전에서 '우승후보' 제주유나이티드를 잡았다.

전남은 지난 16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2020 K리그2 2라운드 제주와 경기에서 후반 13분 터진 김주원의 골을 지키면서 1-0으로 승리했다.

경남과의 시즌 개막전에서 0-0 무승부를 거뒀던 전남은 두 번째 경기에서는 승리를 신고하며 궤조의 출발을 했다.

전남은 앞선 경기에서 이어 4-3-3 포메이션으로 제주를 상대했다.

이종호, 추정호, 하승운으로 공격 진용을 짜고 황기욱, 임장균, 이후권이 허리 싸움에 나섰다.

골키퍼 박준혁을 중심으로 박대환, 박찬용, 김주원, 이운현이 제주 공세에 맞섰다.

전반 7분 제주 정조국이 먼저 강력한 슈팅으로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2분 뒤 이번에는 전남 베테랑 이종호가 제주를 위협하는 슈팅을 선보였다.

팀을 대표하는 선수들끼리 싸움을 벌인 두 팀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전반 36분 연달아 코너킥 기회를 맞은 전남은 이후 하승운과 추정호의 공세로 제주 골문을 두드렸



골 세리머니 하는 김주원.

지만 아쉽게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그리고 후반 14분 기다렸던 2020시즌 첫 골이 터졌다.

프리킥상황에서 임장균이 문전으로 띄운 공을 김주원이 헤딩으로 연결하면서 '0의 균형'을 깼다.

이후 골키퍼 박준혁이 바쁘게 움직이며 제주의 공격을 잇달아 막아냈다.

전남은 후반 41분 이후권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하며 수적 열세에 몰렸지만, 침착하게 남은 추가 시간 6분까지 잘 버티면서 승리를 만들었다.

전남은 난적 경남전 무승부에 이어 제주전을 승리로 장식하면서 '승격 전쟁'의 첫 단추를 잘 꿰었다.

안방에서 기본 좋은 첫 승을 장식한 전남은 오는 24일 오후 6시 30분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서울이랜드를 상대로 연습에 도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16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제주와의 2020 시즌 2차전이자 홈개막전에서 전남 김주원(등번호 6)이 헤더골을 넣고 있다. 전남은 후반 13분 터진 김주원의 골을 지키며 1-0 승리를 거뒀다. <전남 드래곤즈 제공>

재개된 독일 프로축구 첫 득점 주인공은 이재성

안 레겐스부르크전 1골 1도움 맹활약

미드필더 이재성(28·휴스턴인 킷)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독일 프로축구 시즌을 재개하자마자 첫 득점의 주인공이 됐다.

이재성은 지난 16일 오후 독일 레겐스부르크의 레겐스부르크 아레나에서 열린 2019-2020 시즌 독일 2부 분데스리가 26라운드 SSV 안 레겐스부르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터트렸다.

상대 진영 오른쪽에서 얻은 코너킥 기회에서 크로스가 뒤로 흐르자 이재성이 골문으로 달려들어 오른발 눈스톱 슈트로 골망을 출렁이게 했다.

독일 축구전문지 키커는 "프로축구 첫 골이 나왔다"며 이재성의 골이 코로나19로 재개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첫 번째 득점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3월 중단된 분데스리가는 이날 무관중 경기로 시즌을 재개했다.

코로나19로 시즌을 중단했던 유럽 주요 프로축구 리그 중에서는 분데스리가가 가장 먼저 다시 시작했다.



전반 3분만에 선제골을 터트린 이재성이 '덕분에 챌린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다가 이날 같은 시간 2부 분데스리가 4경기가 킥오프했는데 이재성의 득점이 가장 이른 시간에 나왔다. 득점 후 이재성은 반대편 코너 쪽으로 달려

가며 왼 손바닥 위에 엄지를 든 오른손을 올려놓는 동작을 취했다.

이는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때문에 많이 알려졌다.

이재성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구회협회에 손 소독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재성은 이날 풀타임을 뛰면서 후반 13분 핀 포라스의 추가 골도 돕는 등 1골 1어시스트의 맹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길은 두 골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후반 30분 제바스티안 스톨체에게 만회 골, 후반 추가 시간 안드레아스 알브스에게 동점 골을 내줘 2-2로 비겼다.

교체선수 명단에 든 길의 수비수 서영재는 후반 28분 교체 투입됐다.

길은 이날 무승부로 시즌 성적이 9승 8무 9패가 됐다.

미드필더 백승호가 선발 출전한 님슈타트는 카를스루에와의 원정 경기에서 0-2로 졌다.

백승호는 61분을 뛰고 후반 16분 교체됐다.

독일 1부리그 프라이부르크 소속 미드필더 권창훈은 라이프치히와 원정 경기 교체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출전 기회는 얻지 못했다. 프라이부르크는 전반 34분 마누엘 골데의 선제골로 앞서 나가다 후반 32분 유스프 포울센에게 동점 골을 내줘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연합뉴스

다문화선수·우수선수에 전남축구협회서 장학금



전남축구협회(회장 신정식)는 지난 14일 보성군 별교소형관광호텔 회의실에서 2020년도 다문화 선수 및 우수선수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장학금은 다문화 가정의 선수, 우수선수들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정식 전남축구협회장이 직접 선수들에게 장학금 50만원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사진>

올해는 박상진(6년) 선수를 비롯해 광양여고 김민서(여·3년) 선수 등 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 남녀 선수 20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전남축구협회 신정식 회장은 "전남축구의 꿈나무들을 격려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더 많은 선수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빠른 시일 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을 찾아 주말리그 개막 등 학생선수들이 맘껏 운동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암벽 여제' 김자민 살아난 도쿄행 불씨

아시아선수권대회 12월 개최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한 아시아선수권대회를 12월에 개최하기로 하면서 '암벽 여제' 김자민(32)의 '도쿄행' 기회가 극적으로 다시 열렸다.

대한산악연맹 관계자는 16일 "IFSC가 애초 4월 중국 충칭에서 열기로 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무기한 연기됐던 아시아선수권대회를 12월 10~13일 중국 사면에서 치르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유력했던 아시아선수권대회를 12월에 열기로 하면서 지난 3월에 대회 취소를 전제로 IFSC를 통해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배당받았던 천종원(24)과 서재현(17)은 도쿄행에 다시 도전해야 한다.

더불어 올림픽 출전 기회를 날릴 뻔한 김자민은 극적으로 티켓 경쟁에 나설 수 있는 '불씨'를 살렸다.

아시아선수권대회는 애초 4월 25일~5월 3일 충칭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다.

결국 IFSC는 아시아선수권대회의 개최를 포기

하면서 이 대회에 걸렸던 올림픽 티켓 2장을 한국에 배정하기로 결정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승인까지 얻었다.

IFSC는 지난해 8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이미 티켓을 확보한 선수를 제외하고 아시아 국가 선수 가운데 가장 성적이 좋은 남녀 선수에게 티켓을 주기로 하면서 남자부 20위 천종원과 여자부 13위 서재현에게 티켓이 돌아갔다.

하지만 IFSC의 티켓 배분에 다른 아시아 회원국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IFSC는 결국 대회 취소 대신 6월까지 대회를 미룬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도쿄 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되는 초대형 변수가 터지면서 IFSC의 기존 결정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갔다.

올림픽이 내년 7월로 연기된 상황에서 IFSC는

아시아선수권대회의 개최 날짜와 일정을 고민하다가 12월에 사면에서 열기로 결정했고, 천종원과 서재현에게 돌아가기로 했던 올림픽 출전권도 자연스럽게 무효가 됐다.

하지만 올림픽 출전 기회를 놓칠뻔한 김자민은 도쿄행 티켓에 재도전할 기회를 얻었다.

김자민이 올림픽 출전권 획득 기회를 잡으려면 IFSC가 아시아선수권대회 국가별 출전 쿼터를 남녀부 4장씩으로 결정해야 한다.

김자민은 지난 2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여자부 4위를 차지했고, 우승은 서재현이었다. 산악연맹은 대표선발전 순위로 아시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배분한다. 만약 국가별 쿼터를 남녀부 2장씩으로 줄이면 김자민의 올림픽 출전 꿈은 사실상 사라진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2관 하이큐!! 또 다른 도전
- 3관 마이 스파이, 나의 청춘은 너의 것
- 4관 더 플랫톱
- 5관 호텔 레이크, 시간을 달리는 소녀
- 9관 프리즌 이스케이프, 씨 피버
- 7관 씨네커풀 콜 오브 와일드, 톰보이 레미제라블: 뮤지컬 콘서트
- 8관 씨네커풀 레이니 데이 인 뉴욕, 라라랜드 보이콧이어, 어쩌다 아스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강남구 (화양연화)**
2020.4.10(금) ~ 5.1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윤한의 그대를 그리다**
5.27.(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포커스 **선우정아 콘서트**
2020. 6.14.(일) PM 5: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